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자 되는 것에
마음을 줍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궁극적인 생명을 통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알게 된
신자으로써 어떤 통령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를 힘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정적일
뿐이며 궁극적이지 못함을
잊지 않고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참된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날이 올 것을 믿기에

신윤식

어둠이 가득해
하늘의 빛마저 없다 여겨질 때

거센 파도 시커멓게 몰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아갈 때

고통과 아픔이 가득해
피눈물 영혼 속에 흘러넘칠 때

그래도
절망에 붙들리지 않는 것은

세월은 흐르고 있기에
어둠이 지나 동녘에 새벽이 밝아오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승리의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에

모두가 외면한다 하여도
오직 그 한 가지 말씀만을 외칠 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3.31

발행호수 제21권 13호

사도 바울은 고전 15: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부활에서 멀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보다는 절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복음서에 등장하는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는 환생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이해가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상태와 실제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부활의 상태와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늘날의 신앙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말입니다. 현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주된 동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복주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을 신앙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나 부활은 현재와는 거리가 먼 나중의 일일 뿐입니다. 결국 부활이 핵심으로 자리한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몸만 교회에 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잘못되고 유치한 신앙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도덕과 윤리와 인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변화로 신앙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도 부활 신앙은

주일오전설교
요 20:11-18

주를 보았다

희미하게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외에도 불안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외로움을 해결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여러 사람들과의 사귀를 목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부활 신앙은 교리모만 자리할 뿐 사실 현실의 삶에서는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도 부활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죄에서의 건짐이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의 삶에서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물론이고 부활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마음을 두지 않은 믿음은 사도의 말대로 헛될 뿐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에 뜻을 두고 있을 뿐인데 부활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그 마음이 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의 삶을 위한 믿음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믿음을 주신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부활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삶을 향한 관심을 부활의 세계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활이 없는 인간의 그 결국이 어떤가에 대해 생생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종교인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부활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 옷을 입은 두 천

사가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왜 우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라고 답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고 묻는 예수님께 “주여 당신이 옮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누군가가 옮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동산지기가 아닌가 생각하여 옮겨거든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를 향해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이신 줄을 알고 “답오니” 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다는 점입니다. 마 16: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 내어준 적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그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하는 점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여서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동산지기로 착각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지기는 일반인이며 그것도 당시 사회적으로는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그 모습 또한 볼품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해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면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일은 없었어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다는 것을 보면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부활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얼굴 모습이 아예 다르게 변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마리아야” 라는 부름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답오니” 라고 대답했다는 점이 또 다

시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굴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이신 줄 알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동일한 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고, 성경 또한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께서 마리아를 불러 주심으로써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육안의 인식 문제를 벗어난 일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답오니” 여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기존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책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경전으로만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다른 세계를 알게 된 신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본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아무런 경험도 할 수 없지만, 신자는 성경,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세상과는 다른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함께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17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마리아나 제자들과 동일한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의 부활의 예수님을 보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에게 국한된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주를 보았다' 라는 증언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물론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증언한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의 증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로 가시기 전의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목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주를 보았다' 는 증언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 부활의 주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신자는 '내가 주를 보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는 것은 육신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불러 주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시신은 누군가가 옮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마리아의 전부였습니다.

이때의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 는 증언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눈에 보여야 할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주를 보지 못한 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현혹하는 누군가의 말처럼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현상을 목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주를 경험하지 못한 마리아가 무덤을 보며 울고 있는 것과 같은 차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봤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부활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며 그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른 세상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울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 즉 인간의 행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서 행함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주를 보았다' 는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자는 성령으로 인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믿는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를 믿고 있고 하늘의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며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주를 보았다' 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규례입니다(레 19:18). 그런데 본문을 보면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게 합니다. 비록 원수와 할지라도 용서하게 해 달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성경에 어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자에게 어울리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오우설교

시 109:1-16

저주의 기도

(113장 3.10일 설교)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고, 실천의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성경이라면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사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은 저주의 기도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09편을 쓴 저자는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라면서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다윗이 누군가에 대해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같은 저주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며 잠잠하지 마옵소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다윗의 원수에 대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일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는 다윗의 원수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4,5절을 보면 다윗의 원수는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고, 다윗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으며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요?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사랑을 갚았다는 말에서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악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고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예수님의 선과 사랑에 대해 악과 미움으로 갚았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109편은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여 우리가 선과 사랑에 대해 악으로 갚은 예수님의 원수들이며 그런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저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원수에 대한 다윗의 저주의 기도는 저주 받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6절의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는 기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다윗의 선과 사랑에 악으로 갚는 것이 악인, 즉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도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7절의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라는 내용처럼 죄인으로 정죄되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기도까지도 죄로 간주될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저주의 내용을 보면 선과 사랑에 대해 악으로 갚은 대적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비참한 처지가 다윗의 대적자들에게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저주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복을 원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저주이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윗이 말한 비참한 저주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선과 사랑에 대해 악과 미움으로 갚은 사람들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갚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선에 대해 선으로 갚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늘 내 중심에서 나를 위해 살았을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나의 구원을 위해 이용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여호와께 저주의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한 예수님의 대적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마땅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기도 또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저주의 보응이 마땅한 것이 우리의 실상임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의 기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1,22절에 보면 다윗은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중심이 상했다는 것은 상한 심령을 뜻합니다. 상한 심령은 죄를 알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주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이처럼 상한 심령이 되면 자신을 건지는 것을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힘과 위로도 되지 못하며 다만 주의 인자와 선하심만이 나를 저주

에서 건질 수 있는 도움이라는 것을 알고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23-25절에서 다윗은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 가오며 금식하므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 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같은 다윗의 모습 역시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예수님을 쫓는 신자 또한 세상의 영광이나 힘을 위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신자의 길이 세상의 영광이나 힘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진정한 복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한 참된 즐거움 또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27절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마땅한 우리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었다는 것으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자랑할 문제는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소유의 번성이나 세상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31절의 말씀처럼 구급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주가 당연한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인자와 선하심이 나를 건졌음을 고백하며 이웃에 대해서도 주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주에 갇힌 우리를 건진 것이 주의 인자와 선하심이기에는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든든한 믿음에 있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

(71강 3.6일 설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두고 선지자들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쪽은 이년 안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을 하는 반면(28:3), 예

레미야는 그들의 말을 거짓 예언으로 비판을 하면서 칠십 년을 채운 후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28:10). 예레미야가 비판한 거짓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된 유다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이년 안에 돌아온다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고통에 있는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은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님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 하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청중에게 힘과 위로와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여겨지는 말은 피하게 되고 소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고,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믿고 기다리면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말도 합니다.

이런 말이 당장은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로가 되고 희망적인 말로 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벗어났다면 결국 헛된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비록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떠나서 무작정 희망적인 말을 던져서 일시적인 위로를 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자의 거짓 예언일 뿐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포로 된 백성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5,6절을 보면 포로

된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며 밭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그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서 번성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예 그곳에서 정착해 살라는 뜻입니다.

포로 된 자들의 희망은 하루속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손자 손녀를 보기까지 정착해서 살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분명 냉정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망은 커녕 절망만 안겨주는 말입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둥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역시 자신을 돕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에서만 바라볼 뿐입니다. 때문에 유다 백성이 포로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돌아온다고 해도 포로되기 전의 유다의 상태 그대로라면 그들을 포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무의미한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유다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을 포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칠십 년이 차야 한다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8,9절에서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꿈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잘되는 방법만 제시할 뿐이고 꿈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예레미야는 또 다시 칠십 년의 포로생활을 말합니다. 칠십 년의 의미는 땅의 안식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육년간 농사하고 칠년 쉼에는 쉬었습니다. 그 같은 규례를 세우신 의미는 땅에서 농사지으며 살아온 것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었습니

다. 그 증거가 이방인의 우상을 끌어 들여 섬김으로 큰 부요를 누리려 한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기도는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포로 되게 하심으로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자신들의 죄와 함께 은혜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에 포로된 고통은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신자가 바라보는 삶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1절에서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의 칠십 년의 고통의 세월은 유다로서는 분명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며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존의 문제만 생각한다면 바벨론 포로는 재앙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바벨론에서의 고통의 세월에 유다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문제에서 생각한다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칠십 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의 사건이 없었다면 비록 고향 땅에서 편히 산다고 해도 그것이 재앙이고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결국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향땅에서 편히 산다고 해도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재앙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편히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해도, 그런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결국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3장
교 독 : 134(부활절2)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165장
성 경 : 요 20:11-18
말 씬 : 주를 보았다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159장
성례식 : 다함께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5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98장
기 도 : 김정덕 집사
찬 송 : 327장
성 경 : 시 112:1-10
말 씬 : 견고한 마음(11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45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75강)

■ 교회소식 ■

1.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보는 자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이성희 장로님은 비행기 사정으로 31일 늦게 귀국하십니다.
3. 다음 주일 오후에 찬양세미나 있습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최두임 집사

이단 ②

신천지는 세상 끝날이 추수 때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 가서 추수(포집, 포교)를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기존 교회를 자신들이 포교할 추수 밭이라고 하고, 훈련된 신천지 인을 추수꾼이라고 하면서 추수 밭인 기존 교회로 잠입하여 교인들을 포섭하여 신천지로 데려가는 것을 멸망에 빠진 자를 구원시키는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존 교회를 구원 없는 바벨탑에 불과할 뿐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로 이끌어 무너뜨리는 것을 그들의 최대의 사명으로 여긴다. 그러나 자신들의 포교 방식을 자극히 성경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기에 그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다.

신천지는 기존 교회의 교인에게 접근하기 위해 성경을 무료로 가르친다며 전철역과 아파트단지 등에서 수강생 모집 전단지들을 배포하고, 근래에는 수치침 등 무료 강의를 명목으로 접근한다고 한다(요즘에는 위장하기 위해 무료로 하지 않고 1만원씩 받기도 한다고 함). 또한 기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교회에 등록하여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면서 교회에 불만이 많은 자, 열심히 있는 자, 권위가 있는 자를 먼저 파악하여 교묘하게 접근한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녹음하거나 기록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들어 포섭 대상자가 목사나 교회에 불만을 가질 수 있도록 은근히 부추기는 것이다.

이들이 중대형 교회를 대상으로 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교회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여서 교사, 구역장, 청년회장 등 주요 요직을 차지하여 교인들을 교육, 포섭하고 주요 정보를 제3의 추수꾼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소형 교회를 대상으로 할 때는 소위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일컬으며 교회를 통째로 잠식하는 방법을 취한다. 작은 교회에 등록된 신천지 교인이 자신이 전도했다고 하면서 다른 신천지 교인을 데려가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 세력을 형성하여 전도사, 목사를 무고하는 방식으로 쫓아냄으로 교회 자체를 신천지화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분당 교회가 있을 때는 그 교회에 조직적으로 들어가 특정 편에 가담하여 세력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교회가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신천지는 강력한 경계 대상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신천지를 경계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가톨릭도 예외가 아니다. 신천지가 공격 대상을 기독교 교인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인까지 대상으로 하여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가 가톨릭 교인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할 때는 천주교 신부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사칭하여 신천지를 포교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상태이기도 하고 신천지 교리와 그들의 포교 방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비와 같이 신천지는 신앙의 종말론 적인 성격과 인간의 악점, 두려움을 파악하고 교묘하게 접근을 한다. 교회는 이러한 신천지로부터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신천지에 매력을 느끼고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깊이 생각하고 배워야 할 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현대 교회 스스로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기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쉽고 편한 신앙만 찾고, 참된 말씀보다 귀에 솔깃한 내용에 더 마음이 끌리며 교회는 그러한 취향에 맞추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처럼 자극적인 용어로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말에 현혹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